

# 코로나19 환경 아래 특수교육에서의 비형식교육 역할 및 과제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부위원장)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교육 부문의 쟁점은 ‘유네스코 세계교육 현황 보고서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R, 2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185개 국가는 휴교를 단행했고, 학생의 91%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이 중단되어 학교에 가지 못했다. 최빈국의 40%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학습자를 지원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격차와 디지털 격차는 취약계층을 학습 손실과 중퇴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교육은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뤄진 장애학생 원격교육의 한계와 가능성, 학령기교육에서 나아가 비형식교육으로서 장애성인기 평생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브릿지 사업의 예로 라오스의 장애인 교육을 제안하고, 향후 브릿지 사업에서 원격교육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 장애학생이 경험하는 학습의 어려움

올해 11월 유럽연합이 발간한 ‘통합 유럽(Inclusion Europe, 2020. 11)’ 보고서에서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Covid-19 대유행은 세계 10억 명의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유럽연합 국가들이 코로나19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감염증 위기에 더욱 취약한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이 교육·고용·정보와 상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방임·분리·차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기간 동안 학습·발달을 계속할 수 없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온라인 상태여야 했는데,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학습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학교가 재개되었을 때도 일부 장애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고, 아동과 가족이 두려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경우 지적장애·발달장애 학생은 적절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원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폐쇄 이전에 이뤄놓은 모든 진전을 놓쳤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웹 사이트에 읽기 쉬운 형식의 문서와 증강 커뮤니케이션 버전으로 전용 공간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온라인 학습이 시행되었지만 지적장애 포함 많은 발달장애 아동은 필요한 디지털 도구가 없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를 지원하는 조직들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디지털 지원을 제공했고, 간병인, 교육 게임, 동요, 언어치료 활동, 당일 계획과 같은 다양한 교육자료를 공유했다.

## 2.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애학생 원격교육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교육계에서 격차와 소외, 교육의 불평등이란 주제는 이제 어색하지 않은 화두가 되었다. 다수의 조사연구와 통계를 봐도 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또 우려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런 일련의 도전에 대한 유력한 응전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계에서는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 1) 국외 장애인 원격교육 운영 사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학교는 문을 닫고 온라인 상태로 전환되었다. 장애인들은 별다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두려워했다. 학교 폐쇄 및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같은 코로나19의 결과는 장애학생, 그 가족 및 교사에게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유럽 전역에서 학교, 정부 및 조직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은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교육’을 도입했다.

가정에서 수학해야 하는 홈스쿨링은 장애가 있거나 없는 여러 학습자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학습에 여러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지적장애 학습자에게 더 문제가 되었다.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 특히 복잡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에 대한 지원의 부족은 일상에서 자주 확인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기간 동안 학습과 발달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이는 지적장애 아동의 발달에 상당히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학습을 중단한 장애아동의 잠재적 퇴보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원격교육 활용 국외사례 분석’을 보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등 총 10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디지털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자료를 활용해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유형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특별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인터넷 접근성과 학습장비·기기를 보급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돌봄을,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휴교 기간 중에 원격학습을 통한 ‘자택학습’ 못지않게 돌봄·보건·급식 등에 대한 대책을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 가령, 휴교 중에도 가정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교실을 이용한 보호와 함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실을 활용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속적 보살핌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 2) 한국의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과 어려움

코로나19 환경에서 한국의 장애인 교육은 어떠한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구축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방문교육, 학습꾸러미 제공, 교재와 교구를 대여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에게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장애학생 원격교육을 살펴보면 온라인으로는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 학부모의 지원 없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학습결손이 발생한다. 컴퓨터조차 켜기 어려워하는 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학생 중심의 교육방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장애학생의 경우,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주의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업에 오래 참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신체장애, 시각장애 같은 장애유형, 인지적 문제 외에 도전적 행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한 비대면 수업 참여 제약으로 학습에 결손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감내해야할 일이 많다.

특수교사는 현장에서 학생과 교감하며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주입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교사와 장애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자립성·사회성을 익히지 못하게 된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접근 방법을 고민해보면, 가령, 어느 인지 장애인이 자기 프로필을 표시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면 모든 언어가 그가 알기 쉬운 단어로 나타나고 형태도 이해하기 쉽도록 변환되게끔 할 수 있다.

한자어 등 전문 용어 풀이 지원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구성과 같이 장애별 맞춤으로 특화된 구성과 편집 등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시각 장애인인 경우, 텍스트를 읽어 주거나 글자의 크기나 배경 색깔을 해당 장애에 맞게 바꿀 수도 있다.

### 3) 코로나19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원격교육의 개선 과제

코로나19로 인해 주어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학생의 자율성이 교육적 관점에서 얼마나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기르려면 학생과 교사 간의 통제·감시 지향적 관계에서 벗어나 교육적 관점에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 참여 중인 교사와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료를 공유하며, 음성, 문자 채팅, 화상 채팅의 제스처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원활해야 한다.

코로나19 환경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의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우선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학습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온라인 수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윈도우가 탑재된 태블릿 또는 PC만으로 교사와 학생이 원격제어를 통해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의 유형에 맞도록 앱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고, 자폐성장애 학생에 맞는 구간 반복 방지 앱 혹은 발달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VR 학습 콘텐츠 등도 필요하다.

장애학생 유형과 특성에 따른 수어와 자막 삽입, 공학기 대여 등으로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고, 재난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특수교육의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시설 및 환경조성과 정보화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또 실제 곁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방법으로 생태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 3. 학령기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이제 학령기를 벗어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살펴보자. 국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확장되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계층을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은 배움의 효율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느릴 가능성이 높고, 학령기에 학습한 지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령기 이후에도 생애 주기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와 연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습을 넘어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 성인만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이미현, 박성지, 2018). 다시 말해 장애성인 학습자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내용 및 방법과 장애성인의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평생교육 서비스가 요구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성인의 연령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래, 2016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면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됐다. 그리고 올해 동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는 주로 직업, 여가, 문해(literacy) 등 크게 6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 사회적 관계 형성 기술 향상, 사회적 참여 기술 습득 등 장애인의 독특한 요구에 의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발생한다(윤지현, 김호연, 김두영, 2016).

학습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별 장애인평생교육 내용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 4. 브릿지 사업, 라오스 장애인교육 제안

라오스에는 세계에서 확인된 군수탄약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 어린 학생이 장애에 처할 위험 요소가 된다. 유네스코 한위에서 브릿지 사업을 실행하면서 장애학생에 관심을 가진다면 라오스의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 제안해본다.

라오스에서 지난 40년 동안 폭발하지 않은 폭탄의 1% 미만이 제거되었고, 17개 주와 라오스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46개 주 중 41개 주가 불발탄(UXO)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http://d.kbs.co.kr/news/view.do?ncd=2511176>). 불발탄(UXO)으로

인해 폭발물 피해자가 많아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아동이나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되어 피해율이 가장 많다. 폭발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가장 흔한 부상으로는 사지 손실, 실명, 청력 상실, 파편 상처 및 내부 충격파 부상이 있다.

많은 경우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로 장애로 입었을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보살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라오스 사업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외부에서 장애학생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누적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 직업 안정에 대한 교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책을 시스템으로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Lao PDR)의 전체 인구가 기본교육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장애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 비장애아동은 장애아동에 비해 초등교육을 이수할 확률이 두 배이다.

Lao PDR Disability Monograph(2018)와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lan 2016-2020의 Midterm Review(2018)는 모두 장애아동이 교육에 접근하는데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5년 인구 주택 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라오스 ‘장애 모노그래프(Disability Monograph)’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9.6%에 비해 장애아동의 43%가 초등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장애아동은 5학년을 마치기 전에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더 크고, 청각장애 혹은 의사소통 및 인지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60%는 학교에 갈 기회가 없다.

‘장애 모노그래프(Disability Monograph)’는 장애 보조 장비 지원 부족, 학습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 훈련되지 않은 교사, 라오 아닌 타이 아동 지원과 같은 맞춤형 교육 과정 부족과 같이, 여러 학교 수준의 요인이 라오스 장애아동으로 하여금 학습에 동등한 참여 혹은 성취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각장애나 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신체 일부의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인지력에 손상이 없으므로 기술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력에 손상이 없고 남다른 기억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과 자립 기술을 통해 문서 번역이나 통역 분야는 물론 장차 다양한 직업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

교통 인프라가 빈약하고 하드웨어 구축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지역학습센터 (Community Learning Center: CLC)’와 같은 비형식 교육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온 오프라인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이 높다. 장애 관련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과 직업교육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DGs 목표 4(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를 주요 표적으로 하겠지만, 목표 8(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10(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철폐와 기회의 평등 제공), 목표 16(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 5. 코로나19와 같은 환경 대비, 원격교육 브릿지 사업 제안

현재는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 CLC)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브릿지 사업으로서 원격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에서는 2020년 “세계교육연합(Global Education Coalition)”을 조직해 유엔, 시민사회 단체, 기술 파트너의 참여, 공공 및 민간 파트너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가 혁신적이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격교육을 제공하는데 하이테크, 로우테크 및 노테크 접근 방식을 혼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희망브릿지 사업을 통해 지역학습관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기초문해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사업을 실행해 왔다. 이는 유네스코 총회 국가별 발언에서 브릿지 사업 상대국가 위원회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역학습관 사업 지원에 대해 공식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을 통해 그 성과의 일면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교육 소외와 배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면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역학습관을 설립하고 지역 중심으로 비형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더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디지털 전환’을 토대로 한 원격교육 ODA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는 없을까?

이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유네스코 회원국의 교육접근성에 대해 고민하고, 원격교육의 기본원칙인 시공간적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개발 국제협력의 방향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온라인 사업 방식의 전면적 도입 검토, 한국형 원격수업 전수로 교육 ODA 지평 확대, 원격교육에서 국제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 교육협력 교두보 확충 및 현지와의 연대 강화 가능성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 2단계 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향후 사업의 방향과 방법에 큰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팬데믹이 지구촌에서 상수로 작동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을 대비하여 유네스코 회원국의 원격교육 지원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봄직하다.

다만 각 국가마다 환경과 상황이 제각각이므로 그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각 국가의 ICT 현황을 조사하고, 유선 및 무선 서비스 비용, 인터넷 가입자 현황, 양방향 전송망 지도,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현황,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전력공급이 쉽지 않은 경우, 원격교육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원격교육을 위한 태양광 전력 생산을 추정해볼 수 있다. 가령 동티모르, 부탄, 라오스를 대상으로 비형식교육 과목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지역학습센터(CLC)를 운영하는 해당 마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의 원격교육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원격교육을 위한 기술적인 진화 외에도 교육방법 및 교수전략에 대한 발전이 동반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기술 전문가들이 원격교육을 주도해가도록 하

기 보다는, 실제 원격교육에서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원격교육 실행 경험과 노하우와 자산, 향후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원격교육 지원 브릿지 사업으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EU(2020). Inclusion Europe, Neglect and discrimination. Multiplied.
- EUROPEAN COMMISSION(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 Resett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digital age.
- IIEP-UNESCO Dakar(2020). The challenge of monitoring quality in basic distance education, Regional programme to support quality management in basic education.
- Lao Statistics Bureau.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5). Disability Monograph of Lao PDR.
- Laos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2016).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lan 2016-2020*.
- UNESCO(2020).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GEMR). UNESCO.
- UNESCO(2020). Instructions for reviewing the Global Education Monitoring (GEM) Report's education profiles on inclusive education. UNESCO.
- 강경숙(2020). 코로나 대유행, 세계 장애인 불평등 심화시키고 있다. 프레시안뉴스.
- 강성국, 김상철, 김수진, 김은애, 김은영, 도재우, 이윤희, 이은주, 장혜승, 정재원, 조문주, 황준성(2020). 코로나19 대응 국가 수준 원격교육체제 진단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관계부처합동(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 세종: 교육부.
- 관계부처합동(202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2021년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교육부(2020).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 방안(2020.8.6)
- 교육부(202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설명회. 세종: 교육부.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 윤지현, 김호연, 김두영(2016). 발달장애 자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 인식 분석. 한국특수교육학회, 51(1), 129-151.